



편집지침

2016 - 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환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12월 22일자 『“전셋값 20% 떨어지면 ...” 무서운 경고』 제목의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22. 17:39〉

『전셋값 20% 떨어지면 38만 가구가 ‘깡통주택’』

김○○ 기자 k***5th@sed.co.kr

전세 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9만 가구도 집주인이 빚을 내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하나인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고 있는 데다, 2018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깡통주택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이 20% 급락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체 임대가구(746만가구)의 11.9%(88만7,000가구)가 은행에서 빚을 내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은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및 주택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530조원 가량이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가계간 사금융 규모가 1,200조원에 다다른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에 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전체 임대가구의 43.6%(325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이 보유 금융자산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도 전체의 11.9%다. 이렇다 보니 전세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빚을 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만 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의 돈을 줄을 죄고, 공급과잉이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빚을 내야하는 집주인으로선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더 어려워진다”며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분석, 전세 가격이 20% 급락하면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위

협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 기사에는 제목과 첫 문장에서 그 대상 주택 수를 38만 가구라 했는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소개에서는 “전세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91만 가구가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1만 가구라면 38만 가구의 2.4배나 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주는 불안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문 기사와 뉴스스탠드 소개 기사가 차이나는 까닭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위협성을 과장했다는 의혹도 받게 된다.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시하는 편집기법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처럼 독자를 기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론사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2월 17일자 「‘과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

기사입력 2016.02.17 14:34

[해럴드경제= 이슈섹션]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마치 여성의 나체처럼 보이는 “역대급 음란마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이 삭제 조치한 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음란마귀가 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이 목욕하는 여성의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은 페이스북의 권리와 책임 조항을 위반하여 삭제하였습니다”라며 한 여성이 목욕하는 사진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사진은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착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연 페이스북 측이 이 사진을 제재한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란마귀가 단단히 켜다” “나도 모르게 등 뒤를 살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캡처시각 02.19. 14: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과격 노출」로 제재까지 ... 알고보니 「마귀 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사진을 게재했다. 한 단체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사진을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측이 규정 위반으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11월 페이스북이 모유수유 사진을 가슴노출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자 위 단체가 반발심으로 실험에 나섰다 것이다. 가슴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실제 팔꿈치를 교묘하게 촬영한 것이다. 3년 전 보도한 내용을 추가 정보 없이, 그것도 뚜렷한 계기도 없이 재탕한 것은 바람직한 제작태도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SNS 게시물을 인용했다지만 단순한 착시현상을 놓고 국어사전에 없는 「음란마귀」 운운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목에 「마귀 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독자의 눈에 잘 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 사진과 함께 비중있게

게재하였다. 이는 선정성을 노린 과장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제의 원칙

2015-3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3월 29일자(캡처시각)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이버뉴스스탠드



스포츠동아 다양한 한글문서서식

구독해지 | 이용자 한마디 | 03-28 15:54 편집

TOP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순간포착] MBC 초비상...동영상 유...

- 김미려 울컥 "생방송 중 퇴장, 땀까지 꺼지..."
- 박주미 화끈한 스킨십에 박명수 당황 "신..."
- 살현, 충격적 민낯...얼굴 붓고 뒤통지 "무..."
- 이태임 예원 '설지글' 등장... 내용보니 '경악'
- 한선화, 기자들에게 쫓기다 또 교통사고
- 에원 반말에 또 다른 증언 "연예인 병..."
- '슈퍼파워' 김영철, 여자 없는 이유가...
- 'G컵' 케이트 업튼 "예전같지 않은..."
- 김상현, '10구단' 1년 창단 첫 홈런... 롯데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상 캡처시각 03.29. 13:47>

『홍콩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입력 2015.03.28 09:17:00



홍콩 여성 연예인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다공바오는 27일 홍콩 여성 연예인 4명은 성매매사이트에서 사진과 함께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제보돼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한 명은 2012년 영화 '쾌락지구2'에 출연한 천징이(陳靜議·Mia)다. 사이트에서 그는 1시간 30분에 홍콩달러 1만 2000달러라고 나와 있다.

나머지 3명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뜨고 있는 판위시(范語希), 홍콩 케이블방송에서 여성 앵커로 활동하는 황쯔통(黃紫桐·Ruby), ‘쾌락지구3’에 출연했던 여배우 허위안통 등으로 1만4000 홍콩달러~3만 홍콩달러로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사이트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출처:홍콩 다공바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5년 3월 29일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스포츠동아에는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제목의 기사가 톱으로 올랐다.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女 연예인 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충격’」 제목의 기사가 똑같이 톱으로 올랐다. 제목 그대로라면 한국의 여성 연예인 4명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라고 읽혀진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기사를 열면 제목이 「홍콩 연예인 4명이 해외 성매매 충격」으로 바뀐다. 제목 앞에 ‘홍콩’이라고 국적을 표기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편집자가 모를 리 없을 것이므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기사에서 “성매매사이트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해당연예인이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비록 외신을 전제한 것이지만 사진을 포함해 신원을 밝힌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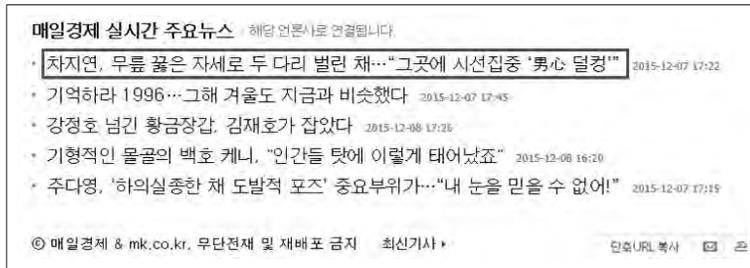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12월 8일자(캡처시각) 「차지연, 무릎 꿇은 자세로 두 다리 벌린 채 … “그곳에 시선 집중 ‘男心 덜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 08. 18:29>

『차지연, 빛나는 시스루 의상에 드러난 육감적인 몸매

기사입력 2015.12.07 07:22:08 최종수정 2015.12.07 14:12: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인턴기자]

‘복면가왕’ 캐츠걸의 유력후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차지연이 출연한 뮤지컬 ‘카르멘’의 프로필 컷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은빛의 반짝이는 시스루 의상을 입은 차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6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여전사 캣츠걸'이 18대 가왕의 자리에 올랐다.

차지연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마이크 습관 등을 근거로 캣츠걸로 추정되고 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복면가왕'에서 인기를 끈 출연자 '캣츠 걸'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가 출연한 뮤지컬 '카르멘'의 프로필 컷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차지연, 빛나는 시스루 의상에 드러난 육감적인 몸매」라는 원 제목과는 달리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기사 말미에 덧붙인 <매일경제 실시간 주요뉴스>에는 「차지연, 무릎 꿇은 자세로 두 다리 벌린 채 … “그곳에 시선 집중 ‘男心 덜컹’」라는 제목을 실었다. 이 사진에서 차지연이 두 다리를 약간 벌린 채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 건 사실이나, '다음'에 실은 제목에서처럼 성기를

암시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사진의 성격, 구도에 상관없이 선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같은 제목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 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월 3일자 「“내 방으로 와” 부하직원 불러 성추행한 판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01.03. 7:18〉

『“내 방으로 와” 부하 여직원 불러 성추행한 40대 ‘실형’

[뉴스시스] 입력 2016.01.03 10:03

[수원= 뉴스시스]김○○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 씨에게 징역 5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장소와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추행의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기업 차장직에 있던 정 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같은 팀 여사원에게 “업 무상 전달 사항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고 한 뒤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d***nkim@newsis.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자신의 숙소로 부하 여직원 부른 뒤 그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의 제목은 「“내 방으로 와” 부하여직원 불러 성추행한 판사...」로 돼 있다. 판사가 자신의 방으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을 본래의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을 오도한 것일 뿐 아니라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5년 3월 10일자 8면 「재·보선 비용 350억 ... 의원 1명 또 뽑는데 혈세 15억 ‘헛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350억 원(4·29 재·보궐선거 예상 비용 추가)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29 재·보선까지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만큼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5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지만 대상자 10명 중 납부를 완료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공개한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3회의 재·보선(2013년 4월 24일, 같은 해 10월 30일, 2014년 7월 30일)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출한 선거관리 비용은 247억 8000만여 원(의원 20명)이었다.

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쓴 경비를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총 61억 원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절반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47명의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100% 돌려받았고, 3명은 50%를 반환받았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들어 재·보선에 사용한 비용(선거관리비용+선거비용 보전)은 총 309억 원이다. 여기에 오는 4·29 재·보선의 비용은 36억~40억 원(중앙선관위 추산)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19대 국회 재·보선 관련 비용은 총 35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보선에 사용된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4·29 재·보선은 구 통합진보당으로 인해 치러지게 됐지만 통진당은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9대 국회 선거비용 반환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반환 대상자는 10명(14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납부 완료를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징수불가는 1명(1억3200만 원), 징수 중은 5명(6억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순

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과 방안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23명을 새로 뽑는데 350억 원이 소요돼 국회의원 1명당 15억 원의 혈세가 지출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재·보선 비용 350억 … 의원 1명 또 뽑는데 혈세 15억 ‘헛돈’」으로 달았다. 재·보궐선거비용을 ‘헛돈’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불공정한 선거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거나 당선인의 공석상태가 되는 경우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비록 편집자는 비용 측면에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미로 ‘헛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표현은 자칫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東亞日報 2015년 4월 8일자 A6면 「권노갑 “선거 돕겠지만 文대표에 서운한 건 사실”」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4월 11일자 15면 「문재인 대표에게 앙금 있지만 … 정권교체 위해 분당 만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동교동계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궐 선거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재·보선 지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동교동계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보다 당을 앞세운다)’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이어 정권교체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참배 후 권 고문은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 박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선거 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표는 “감사하다. 모두 단합해 선거 승리의 길로 가자”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권 고문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고 인정해

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 정치의 관행은 주류 60%, 비주류 40%의 배합에 있었는데 그런 정신을 문 대표가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문 대표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후략)』

(중앙일보)= 『4·29 재·보궐선거를 돕지 않겠다는 동교동계의 ‘정치 파업’은 수습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최고위원이 동교동계의 행태를 ‘지분을 챙기려는 정치’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술밥을 먹던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균열이 친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 동교동계와 비동교동계 간 신경전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추 최고위원이 한때 정·천 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정풍(整風)운동’을 주도했던 ‘옛 동지’란 점이 극적 효과를 더한다.

파란의 한가운데 있는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86) 고문. 그를 지난 9일 만났다. 오전 9시50분 용산역에서 새로 개통된 호남선 KTX로 광주광역시를 방문, 오후 9시25분 서울로 돌아오는 12시간에 걸친 동행 취재다. 권 고문은 차기 여야 대선 후보 중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인데, 이런 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내 일부에서 친노계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문 대표가 (불신을 가져온) 여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분당하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나 당을 깨고 새로 만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진다고 타이르고 있다”고 말해 당내 갈등이 완전히 잠재워진 게 아니라는 걸 내비쳤다.

권노갑 고문은 “친노계가 지난 총선 때 한광옥 전 대표 등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친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에서의 결의(3월 31일)는 권 고문의 뜻이었다.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 김희철 후보가 0.6%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당 심이나 당원 조사에서 앞섰는데 이번에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친노계인) 정태호 후보에게 떨어지자 여론 조작 논란이 일어났다. 친노들의 경선 방식이 늘 그랬기 때문에 관악구 당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원들을 커버하고 있는 이훈평 전 의원이 묘역에 와서 ‘권노갑 고문이 문 대표를 지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여기서 찬반을 하자’고 하니깐 일제히 거수투표를 해 ‘도우면 안 된다’고 했다. 많은 당원의 반대에 따라 나도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지켜보라며 보류했다.”

- 광주를 시작으로 후보 지원을 시작한 건 여론조작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보가 결정된 이상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반발하고 뛰쳐나가면 안 되고 일단은 수습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안 쓰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

- 그런 뜻을 동교동계가 따르기로 했다.

“8일 거구장에서 동교동계 전직 의원 등 60여 명이 모여 모든 결정을 나한테 맡기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일부 불만 세력은 문 대표 측, 소위 ‘노빠’(노무현 지지 세력)를 왜 도와주느냐는 불만이 여전히 있지만 문 대표를 도와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 내명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해야 하다는 의견은 같았다.”

- 문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 합의 내용은 뭔가.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었다. 문 대표가 대북 송금 특검 문제라든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사건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중략)

- 지난해 11월 5일 문 대표와 만났을 때 6대 4 논의가 있었다는데.

“당 대표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표를 받고도 안 됐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자문단·교수단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만약 당 대표가 되더라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했다.”

과거 유진산·유진오·윤보선씨 같은 당수들도 주류가 60% 차지하고 나머지는 40% 비주류에게 할애했다. 지난 19대 때 공천을 보면 완전히 친노 독점이었는데 배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걸 얘기했다.”

- 문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 건 박지원 의원 때문인가.

“대표가 되면 그만큼 상처를 입고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가 소홀해진다.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안보·경제·사회·통일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

- 문 대표의 문제인가, 친노의 문제인가.

“친노다. 당직이나 공천을 전부 독점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22명을 독점했고 지역구도 일방적으로 해버린 폐단 때문에 양금이 생긴 거다.”

- 불신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나.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 현대 비자금 문제, 도청 안 했는데도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도청했다고 해서 구속됐다. 나도 현대에서 200억원 받았다고 해서 구속돼 3년간 죄 없이 옥살이를 했다. 또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분당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한 거다. 또 노 대통령이 ‘광주 시민이 나를 이빠서 찍어줬느냐,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찍어줬지’라고 말한 것,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 할 때 탕평인사를 하라는 정찬용 인사수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 호남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걸 빨리 불식하기 위해선 문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중략)

이날 오후 권 고문은 광주 서구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 들러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뤘던 과업을 우리 새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뚝뚝 뭉쳐 단결해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문 대표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 대선 후보로 문 대표를 지지하나.

“문 대표의 자질이나 자격·능력 문제는 현재 내가 말할 수 없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탄 후보들하고 정견 발표할 때 얼마나 앞설지 그건 알 수 없다. 다

만 여론상 앞서고 있는 게 하나의 기준은 된다. 문 대표가 25.3%, 당 지지도가 27%다. 야당 후보가 여야 합쳐서 1위를 가고 있는 이런 일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없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앞서고 있다. 국민의 지지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 대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집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4·29 재·보궐선거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동교동계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동교동계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기사는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보다 당을 앞세운다)’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 이어 정권 교체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 「권노갑 “선거 돕겠지만 文대표에 서운한건 사실”』이라고 뽑았다. 권 고문이 문 대표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권 고문이 ‘문 대표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감정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사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 정치의 관행은 주류 60%, 비주류 40%의 배합에 있었는데 그런 정신을 문 대표가 이어 나가길 바란다(문 대표에게) 말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호남지역이 문 대표에게 갖는 서운한 감정을 전한 권 고문의 발언을 마치 권 고문 본인이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한 셈이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고문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 「문재인 대표에게 앙금 있지만 … 정권교체 위해 분당

만류」다. 또 문패제목은 「이정민이 만난 사람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고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권 고문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양금 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분당을 만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권 고문 발언 내용이 없다. 『권 고문은 차기 여야 대선 후보 중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인데, 이런 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놓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진제한 뒤 “당내 일부에서 친노계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양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기술이 있을 뿐이다. 문 대표와 친노계에 대한 당내 일부의 감정을 전한 것인데 편집자는 이를 문대표에 대한 권 고문의 양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사안을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8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6월 12일자 11면 「‘일베 홍대 교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시험문제를 내면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홍익대 법과대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대학에서 치러진 영미법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중 ‘미국계약법’ 관련 문항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이 제시됐다. 해당 지문에는 김 전 대통령을 ‘Dae Jung Deadbeat(게으름뱅이, 사회낙오자)’로, 노 전 대통령을 저능아로 표현한 문장이 포함돼 있다.

총 45문항 중 23번 문항 지문에는 ‘Dae Jung Dedbeat’가 ‘Hong-o(홍어)’를 팔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삼을 판다는 기술이 등장한다. ‘홍어’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 29번 문항엔 ‘Roh(노무현 대통령의 성의 영어식 표기)’가 ‘Owl Rock(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 69의 저능아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런 사실은 지난 10일 홍익대학교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홍익인닷컴’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홍익대 총학생회 등 학내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교수가 사과 조치를 취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교수는 “문제시되고 있는 문항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 풍자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Deadbeat라는 단어는 계약법상 ‘상환 기일을 넘기는 사람’이란 의미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홍익대 그 교수가 최근 시험문제를 내면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어지문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일베 홍대 교수’」로 뽑았다. 일베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다. 제목만 놓고 보면 문제의 교수는 일베 회원이거나 일베를 추종하는 사람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ㄱ교수가 출제한 문제 중 23번 문항 지문에 『‘Dae Jung Dedbeat’가 ‘Hong-o(홍어)’를 팔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삼을 판다는 기술이 등장한다』 『‘홍어’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라는 기술만 있을 뿐, ㄱ교수가 일베라는 표현이나 ㄱ교수를 일베로 추정해 불만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ㄱ교수가 영어 지문에 ‘Hong-o(홍어)’ 표기를 넣었다는 점을 확대 해석해 제목을 「‘일베 홍대 교수’」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9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정영무

주문

한겨레 2015년 10월 8일자 3면 「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배경엔 보수세력의 끈질기고 집요한 역사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이념 투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검인정 제도에서 만들어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두고 “친북·반미·반재벌 교과서”라며 집중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분단 극복과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만이 들끓던 때였다.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맞춰 보수성향 일간지들은 금성교과서를 ‘민중사관 교과서’라 부르며 “북한을 긍정 서술하고 남한은 독재·친일을 부각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식달 뒤인 2005년 1월 출범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자학사관’ 기반이라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우파 논리를 정립해나갔다. 식민지 근대화론 인정, 제주 4·3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박정희 반공 독재체제 긍정 등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들은 역사학계로부터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과서포럼은 2008년 5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며 또다시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빚발쳤고 대중적으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꼭 10년 만인 2013년 보수세력의 오랜 노력은 빛을 보는 듯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 끝에 교육부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대에 그쳤다. 교학사 교과서의 ‘실패’는 보수세력이 검인정 제도 아래에서 ‘입맛에 맞는 교과서’ 출간 시도를 포기하고, ‘국정교과서’ 도입이란 퇴행적 무리수를 꺼내드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오랜 시간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교과서 국정화의 일등공신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꼽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겐 부친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교학사 파동’ 당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며 직접 당내 ‘근현대사역사교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을 참석시키기도 했다.

당·정 조율 파트너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

연'으로 국정화 흐름을 뒷받침했다. 교육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강은희·서용교 의원이 검정제도의 오류와 집필진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배경에는 지난 11년 동안 보수 세력의 끈질기고 집요한 역사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국정화의 일등공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목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연' 역할을 했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으로 단정적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김무성·황우여·원유철 총대 메」로 달았다. 사실상 기사에서 거론된 인물들을 극우세력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극우'라는 표현이 없다.

일반적으로 '극우'는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반민주적 색채가 강한 부류를 일컫는 부정적인 용어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없이 특정인을 '극우'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관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5년 12월 24일자 A2면 「아이들 볼모로 떼쓰는 서울시교육청 ... 한술 더 뜨는 시의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실력 행사'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기본 예산 편성 원칙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6328억원)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국고 뭉이라며 반발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시의회가 형평성을 들어 그마저도 삭감해 버린 것이다. 결국 내년 서울 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시 의회는 다만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해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 역점사업인 청년수당 예산(90억원)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23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보육 예산은 내팽개쳐버리고 불

요불급한 사업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국가재정법상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자체, 기업, 일반 가정 할 것 없이 새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지출해야 하는 것부터 예산을 아껴가며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버린 채 다른 예산을 심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여기에다 서울시가 편성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삭감됐다 복구된 전례가 있고, 한국노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체(105석)에서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박 시장 역점 사업과 민주노총 예산을 모두 의결해준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보육 현장은 내년 초부터 당장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은 각각 9만3775명, 10만9398명이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약 4조2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할당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약 2조1274억원, 유치원에 할당되는 예산은 약 1조8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 단체 행동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011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매년 10월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육교부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말에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4조250억원에 대해 지자체별 누리과정 아동 수를 고려해 배분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만 지자체 예산이지 사실상 전액 국고 부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교부금이 목적성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누리과정을 위해 내려보낸 교부금을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게 중앙정부 시각”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실력 행사’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기본 예산 편성 원칙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각계 의견과 향후 파장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아이들 볼모로 떼쓰는 서울시교육청’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일을 억지로 요구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기술은 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6328억원)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국고 뚫이라며 반발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시의회가 형평성을 들어 그마저도 삭감해 버렸다는 것 외에는 없다. 큰 제목에 표현된 시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떼쓴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도 다르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7일자 1면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 ‘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24곳에서 치러져 그 비용으로 25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의원을 다시 뽑는데 평균 10억원 정도가 들어간 셈이다.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로는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르거나, 마음이 콩밭(자치단체장)에 가 있는 후보를 뽑았다가 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18대와 19대 재보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 국고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에서는 의원들의 당선무효, 퇴직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총 24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가장 최근자료(2014년 7·30 재보궐선거까지)를 보면, 20곳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214억4214만원의 국고(선거경비집행비)가 지원됐다. 1곳 당 평균 10억원여다. 이를 2015년 4·29 재보궐선거(4곳)에 추산·적용하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 이 비용에는 투표독려 현수막, 투·개표 인건비, 선거비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고지원은 지역구의 면적·인구수 등과 비례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진 지역구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130억원의 국고 낭비 원인이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4곳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역구 3곳을 포함해 총 4곳을 기록했다. 무소속은 2곳, 진보정의당은 1곳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한 사례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스스로 물러난 경우로 서울 동작구를 정몽준 전 의원(서울시장 출마)과 대전 대덕 박성호 전 의원(대전시장 출마) 등 새누리당이 총 7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수원정의 김진표 전 의원,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전남 담양의 이낙연 전 의원 등 2명이었다.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총 8곳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3곳이었다. 이 밖에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선군과 삼성X파일 공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도 선거를 다시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총 21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져 199억6611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9대에는 이보다 3곳의 지역구와 50억원여의 국고낭비가 늘어났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24곳의 재보궐 선거에 250억여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2014년까지 치러진 20곳의 선거비용 214억원을 근거로 2015년의 재보궐 선거 4곳도 같은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을 썼다』고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사유는 지자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한 '퇴직'이 10곳,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가 8곳이다. 이밖에 국회 폭력(최루탄 투척)과 삼성X파일 공개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선동,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선거를 다시 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 '범죄'로 250억 날린 19대 국회」로 달았다. 19대 국회 들어 실시한 24곳의 재보궐선거로 치른 비용 250억원의 원인을 모두 '범죄'로 간주해 세금을 '날렸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기획 취지가 「안들어가도 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때, 제목에서 언급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거를 치러'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8곳으로 한정해서 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퇴직은 설사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겨냥해 국회에 진출한 후 중도에 사퇴했다 해도 '범죄'는 아니다. 또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그 의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본인 주장이었고,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명령(통합진보당)에 따라 치러진 3곳의 재보궐 선거도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혈세 낭비'도 24곳 선거에 사용된 250억원이 아닌 8곳에 사용된 80억원으로 추산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위 기사 제목은 정치권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장용성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2월 5일자 「[단독]유승옥,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라는 제목, 「北 김정은 화장품공장 시찰 동행한 여자가 … 갑소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이 보도한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

다양한 한글문서서식을 만나보세요

02-06 11:30 편집

박태환 금지약물 논란...검찰 "의사가 문제없다고"

- 박태환 '지난해 1월 두 차례 도핑검사' 결과에 출려
- 박태환 청문회 준비팀 가동...대응 방향 등 논의
- 박태환, 금지약물 알고도 편파시빅대회 출전했을까

삼성전자, 올해 해외시장 선보이는 TV 신병기가...

- 삼성 아실라 갤럭시6엔 애플도 생각지 못한 기능이
- 윤부근 "삼성 프리미엄가전에 IoT 탑재"

4배 빠르다는 3밴드 LTE-A 실제 써보니 '뽕!'

[속보] 법원, 구형마을 절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36세 미모 女배우, 대권 도전 선언...누구?

내일부터 주민번호 불법수집하면 과태료가 최대...

日 유명 신발매장 가보니 물건은 없고 컴퓨터만...

'달달한 과자 전쟁' 업계 1위 롯데도 가세

중국 1등株,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랩 상품 인기

北김정은 화장품공장 시찰 동행한 여자가...갑소사

[단독] 유승옥,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

"여자 때리지 않았다, 상황이..." 박명수 울먹

김구라 "아들 동원, 건 강보원료에 허리 휘어"

- 김부선, 호인 무대에 "호소력이 없다"
- 김준호, 갈 길 멀지만 신뢰받는 이유는
- 안정환, 이해원에 청혼하며 건넨 돈이

올리 강지현, 올리보게 남편 얼굴 '잘랐'

계시, 비키니 본품 '남소, 유권유권'

매일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캡처시각 2015.02.06. 12:42>

『[단독]제대로 떴다! 유승옥, 생애 첫 주연 꺾차

기사입력 2015.02.05 13:41:36 최종수정 2015.02.05 14:33:47



유승옥(사진=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제공)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OO 기자] ‘신이 빛은 몸매’라는 찬사의 모델 겸 배우 유승옥(24)이 생애 처음으로 주연 자리를 꿰찼다.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인 그가 배우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옥은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50부작 웹드라마 ‘소녀연애사(가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소녀연애사’는 바람둥이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몸도 돈도 다 바친 연애 초보 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폰은 ‘롤리코스터-남녀탐구생활’, ‘세친구’, ‘남자셋여자셋’ 등을 연출했던 김성덕 감독이 잡았다. 다음카카오 창립 기념으로 기획된 작품이어서 웹드라마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승옥은 동양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에서 입상해 주목받았다. 머슬마니아 대회는 각국의 모델·휘트니스 부문 예선에 통과한 선수들이 본선을 치러 경쟁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다. 이후 그는 SBS ‘스타킹’에 출연, ‘SNS 핫 보디 몸매 종결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일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유승옥 측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CF 촬영과 중국 활동

등 짝 채워진 일정으로 눈 코 뜰 새가 없다. 양해 부탁 드린다”고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정도.

일각에서는 유승옥을 두고, ‘몸매로 뜬’ 클라라의 대체 주자로 평가하는 이도 있다. 유승옥 역시 단순히 모델로서뿐 아닌, SBS플러스 드라마 ‘도도하라’ 등 여러 작품에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으나 최근 몸매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터다.

그의 팬이기도 하다는 한 방송 관계자는 “유승옥은 클라라와 다르다. 엄청난 노력파다. 이번에 제대로 뜬 유승옥이 자신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잘 흡수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그를 계속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f**t@mk.co.kr」

『북한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 시찰 ... 김여정 수행

기사입력 2015.02.05 08:35:35 최종수정 2015.02.05 08:36:32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내외의 수행을 받으며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평양화장품공장에 방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화장품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인민들이 외국산보다 은하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은하수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도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하수’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상표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봄향기’와 함께 북한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위원장은 또 화장품 생산의 과학화·현대화 등을 강조하며 올해를 ‘화장품공업 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김여정·신만균 부부장 외에도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과학교육에 필요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를 보내줬다며 선물 전달식이 4일 열렸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새해 들어 버섯공장, 신발·구두공장, 식품공장 등 경공업 부문을 시찰하며 ‘주민생활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의 주목도가 높은 곳에는 「[단독]유승옥,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라는 제목이 게재돼 있다. [단독]을 강조한 이 기사의 제목만 읽으면 모델 겸 배우로 알려진 유승옥이 바람둥이에 사기 당해 몸도 돈도 다 잃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기사를 열면 내용은 전혀 다르다. 유승옥이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50부작 웹드라마 ‘소녀연애사(가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바람둥이에 사기당해 몸도 돈도 다 바친 것은 웹드라마 ‘소녀 연애사’의 여주인공 이야기다. 웹드라마의 여주인공 이야기를 마치 주연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실제로 당한 것처럼 거짓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마저 있다.

「北 김정은 화장품공장 시찰 동행한 여자가 … 맵소사」라는 제목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클릭하면 북한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을 시찰했고, 이를 여동생 김여정이 수행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것은 이미 3년이 넘었음에도,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화장품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한 기사에 “시찰 동행한 여자가 … 맵소사”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에게 혼동을 주는 동시에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0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아이닷컴 발행인 조 상 현

주문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 2015년 6월 2일자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아이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진실 떠난 지 8년 ... 사춘기 접어든 그녀의 자녀

MBC ‘진실이 엄마 II’, 할머니 정옥숙씨 사랑 ‘화제’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6.02 12:45:58 수정시간 2015.06.02 12:45:58

“내가 진실이, 진영이에게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싶어요. 내가 떠나는 날까지 정말 환희, 준희에게는 잘해주고 싶어요.”

배우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그 딸을 가슴에 묻은 채 혼자 손주를 지극 정성으로 길러온 ‘진실이 엄마’ 정옥숙 씨의 고백이 다시금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1일 밤 방송된 MBC TV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II’에서는 곳곳하게 손주를 돌보는 정 씨의 사랑과 사춘기에 접어든 환희, 준희의 성장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다큐는 2011년 방송돼 화제를 뿌린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의 후속작이다.

4년이 지난 뒤 최진실의 아들 환희는 15살 과묵한 중학생이 됐고, 딸 준희는 재기 발랄한 13살 소녀로 방송에 등장했다.

환희는 “할머니가 엉덩이가 헐도록 공부시킨 덕에” 제주도 국제학교에 진학

했지만, 노는 것이 마냥 좋은 준희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정 씨의 애물단지다.

아빠인 고(故) 조성민을 꼭 빼닮은 환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할머니의 반대에도 연예인을 꿈꾼다.

가수가 되고 싶다 말하던 준희는 이제 그 꿈은 접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남자 친구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만 강조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요즘 청춘을 모른다”거나 “할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제작년 최진실과 함께 살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으로 돌아온 정옥숙 씨와 준희는 그러다 보니 날마다 전쟁이다.

방송은 자신을 위해서는 만 원도 쓸 생각도 없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정 씨와 쾌활한 것 같으면서도 온기 없는 집에서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준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준희는 악성 댓글 공격을 받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엄마도 그 댓글들을 참기 어려워서 그런(세상을 떠난)건데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고 말하거나, “왜 이렇게 다들 한 명씩 떠나가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쓸쓸함을 자아냈다.

정 씨는 준희가 한국에서 더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국 유학까지 고려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임을 깨닫고, 결국 준희 의사를 존중해 김천의 고모네로 보낸다.

이날 최진실, 최진영 남매를 차례로 떠나보낸 정 씨의 가슴 절절한 고백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정 씨는 “사랑하는 딸을 보내놓고서는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 “진영이까지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천벌을 내리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II’는 6.4%(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방영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는 5.1%, SBS TV 예능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3.4%를 기록했다.』

홈페이지 기사목록차



사진출처=한해진 인스타그램

주간 BEST 기사

연예	스포츠	라이프
1 '올라라 생리날'까지... 얼마나 등했길래		
2 '모태술로' 처유림 첫경험 남자가...깜짝		
3 중견 여성커 애정행각 드러나자...깜짝		
4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		
5 코끼리다라 男 파시 젊은 안타까운 자만		
6 송승강구 '복면가왕' 고민 깊어지는 까닭		

투데이 Hot 이슈

- 말기암투병 48세 "男" 죽기적전 한말이
- <화제> 발기부전 이거 쓰면 바로 관계가능?
- 보험료가 오르지않는 비경신형 알보철 문이
- 커피값으로 "하루 1kg씩" 뺄수 있다면?
- 자기전에 o o한건! 살이 폭팍~ 빠져?
- 은행이자보다 4배더... 원금 보장형 상품이...
- 여성 불감증 요실금 동시에결?

무로만화



끝돌눈에는눈



2002소림사

<캡처시각 15.06.02. 12:45:58>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아이닷컴은 배우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지만 친정어머니 정옥숙 씨가 혼자서 손자 환희(14)와 손녀 준희(12)를 지극 정성으로 기르고 있다는 내용음 담은 MBC TV '휴먼다큐 사랑-진실이 엄마 II'를 소개하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였다.

딸 최진실과 아들 최진영, 사위 조성민이 모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했고 이후 친정어머니 정 씨가 사랑을 다해 외손자와 외손녀를 양육하는 내용은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이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친정어머니 정 씨와 손자손녀가 TV 취재보도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신분이 노출되고, 남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울 트라우마를 2~3년 꼴로 세 번을 겪은 아이들의 아픔을 되살리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춘기 최진실 자녀들 이런 짓을? 깜짝!」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아버지인 고(故) 조성민을 속 빼닮은 환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

지만 할머니의 반대에도 연예인을 꿈꾸고, 가수가 되고 싶다 말하던 준희는 이제 그 꿈은 접었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고 남자 친구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제목은 최진실 자녀들이 마치 ‘못된 일’을 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3136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재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5년 8월 26일자 「“김영란法 때문에 망할 수도...” 백화점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5.08.26. 23:50〉

『‘시한폭탄’ 안고 가는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수입 소고기 장려법 … 한우농가 줄도산 부를 것”

입력 2015.08.26 18:23:12 수정 2015.08.26 20:48:16

지면정보 2015.08.27 A5면

‘선물 3만원 제한’으로 망가진 꽃농가 전철 밟나

한우 4000억·굴비 1900억원대 피해 예상

농가 “농축산물 고급화 권하더니 …” 분통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국내산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무너지고 저가 수입산 시장만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농협유통이 올해 추석을 맞아 선보이는 농산물 선물세트. 농협유통 제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에 한우, 과일세트 등 선물용 농축산물 상품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연간 한우 소비량의 50%, 사과·배의 40~60%가 명절 선물용으로 나간다. 부정부패를 막으려다 1차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농민들 “희망이 없다”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 37마리를 키우는 축산농 박일진 씨(48)는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하는 선물 금액 상한이 5만~10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판매량이 푹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다. 일반적인 한우 선물세트 가격은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박 씨는 “17년 전 처음 축산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소를 키우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제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김영란법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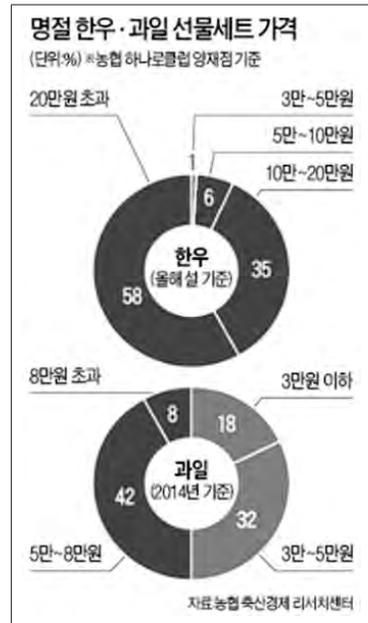
전체 한우농가 9만9000호 중 9만호가 박 씨처럼 100마리 미만을 기르는 중소농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고가 한우세트 선물이 금지되면 한우산업 전체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팔린 한우 선물세트 가격은 10만~20만원이 35%, 20만원 이상 50%, 10만원 이하는 7%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기는 과일농가도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배 농사를 짓는 김주환 씨(59)는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을 아예 처분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배는 명절 선물 수요가 거의 절대적인데 배 선물을 막겠다고 하면 당장 올해 물량부터 사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과일 선물세트는 절반(50%)이 5만원 이상이다.

◆ “고급화하라더니 ...”

정부의 기존 농축산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값싼 수입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펴왔다. 농민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시설과 사료 투자를 늘려 농축산물 품질을 높였다. 국산 농축산물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은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한우 1인 식단가는 7만7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고가 농축산물 선물을 막으면 결국 국내 프리미엄 시장



은 무너지고 저가 외국산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우를 비롯해 인삼, 굴비 등 한국 고유의 토종식품도 설 자리를 잃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결국 김영란법은 수입 고기를 애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이 아니라 ‘수입고기 장려법’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장기적으로 축산농가는 한우, 한돈을 포기할 테고 결국 국민은 수입육 외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만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예외로 인정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꽃 산업 전철 밟을까

선물 금지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화훼산업이다. 공무원 선물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9년) 이후 1조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줄어든 자리는 중국산 저가 꽃이 채웠다. 화훼농가는 5300여곳에서 3600여곳으로 줄었다. 화훼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010년 1억달러에 달하던 화훼 수출 규모는 2014년 4000만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산업 특성이나 국산 및 수입품의 가격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부터 시행한 게 문제였다. 장만형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보통 축하난이 10만원, 예식장 3단 화환이 15만원 선인데 실거래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3만원으로 규제해버리니 화훼산업이 아예 망할 판”이라며 “한국 문화에서 꽃은 뇌물이라기보다 축하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요즘엔 이런 미풍양속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는 4154억원, 굴비는 1950억원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화훼

산업처럼 줄도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김홍길 회장은 “비리 공무원 한두 명 잡자고 1차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임○○ 기자 k**o@hankyung.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까지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영란法’이 농축산물에게까지 적용되면 명절 수요가 대폭 줄어들어 농축산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원제목 「‘시한폭탄’ 안고 가는 김영란법’/김영란법은 수입 소고기 장려법 … 한우농가 줄도산 부를 것」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엉뚱하게도 「… 백화점이 망할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이는 명백하게 선정주의적인 제목달기라 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하는 선물 금액 상한이 5만~10만원 선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명절때 주로 소비되는 10만원 이상의 한우선물세트가 85%에 이르는 현실에 미뤄볼 때 매출급락으로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이 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혹여 편집자가 백화점이 아니라 농축산가가 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제목을 달았다 해도 과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기사내용을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는 선정주의적 제목은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27일자 「잔머리 놀랍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왕’」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조선비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7. 17:23〉

『[단독] ‘갑질논란’ 롯데마트 상품기획자, 상품권깡 통해 금품받아 ... 롯데 ‘해당 직원 면직’』

박○○기자 입력 2016.01.27 15:11 수정 2016.01.27 17:03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MD(상품 기획자)가 이른바 ‘상품권깡(할인환매)’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게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통장으로 건네도록 했다.



☞ 관련기사

[단독] 공정거래조정원 “삼겹살 물류비 32억 협력업체 전가 등 롯데마트 ‘갑질’로 48억원 떠넘겨”〈2016.01.17.〉

해당 MD가 납품업체 직원을 매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뒤 건네받을 때 입막음용으로 일부를 떼어준 것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MD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문규 롯데마트 홍보팀장은 “2015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직원을 면직했다. 개인 윤리 강령·서약서 작성, 자체 감사 강화 등 개인 비리를 방지하고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롯데백화점 상품권깡으로 2000여만원 받아 … “다른 업체에서도 용돈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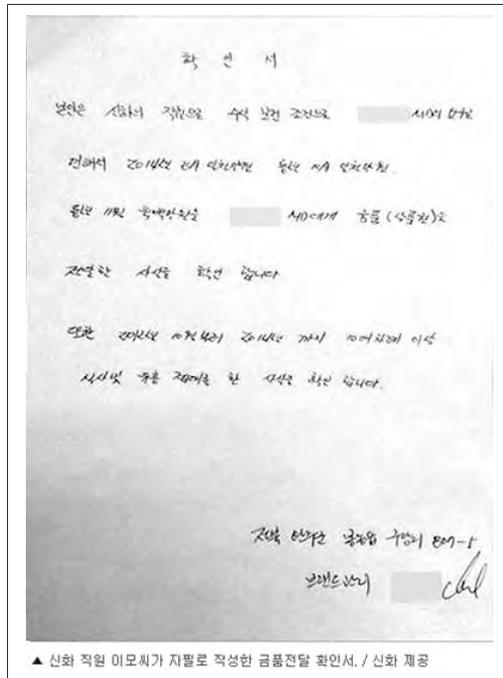
납품업체(신화) 직원 이모 씨는 27일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자필 확인서를 통해 “롯데마트 축산물 담당 MD의 요구로 2014년 8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품(상품권) 2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롯데마트 MD A씨가 상품권깡을 요구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 수수료로 6% 정도를 떼는데, 환전한 뒤 전달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MD가 롯데백화점 상품권깡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통상 납품업체들은 직원 격려, 상여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비해두는데, 이를 뒷돈 요구에 이용한 것이다. 상품권은 고

액권 발급이 가능하고, 수표와 달리 거래시 의무적으로 서명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롯데마트와 주로 거래해 온 신화는 롯데마트의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구비해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납품업체 직원은 “상품 요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상품권을 환전해 송금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절대 갑인 MD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	일시	내역	잔액	잔액
09 17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10,000	10,000,000	
09 18	신상봉우리	7	7,000	
09 29	(주)에스이스(YES14)	783	783,400	
에스이입사후식회사 ☎ 0215443800				10,790,400

▲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 / 신화 제공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신화 제공 ▲롯데마트 납품업체 신화가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신화는 2015년 9월 1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추가 구매했다./신화 제공 이 씨는 MD A씨가 납품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신화는 2012년부터 롯데마트와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돼지고기를 납품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상태였다. 신화는 롯데마트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 물류비 전가 등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납품업체 직원 매수 의혹 … 롯데마트 “해당 MD 작년 말 징계위 회부, 면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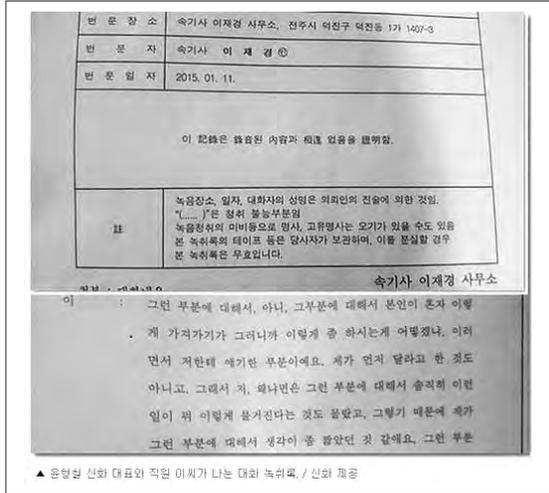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MD A씨가 이 씨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깡을 거친 것도 모자라 입막음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줬다는 것이다. 이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한 셈이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롯데마트 MD A씨에게 이 씨가 돈을 건넬 때 MD가 이 씨에게 일부를 떼어줬다. 이 씨는 자필 확인서에서 26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중 A씨가 210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이 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실제 이 씨의 녹취를 확인한 결과 이 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MD A씨) 본인이 혼자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얘기했다. 제가 (처음엔) 사양을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회사를 퇴직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와 직원 이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신화 제공 ▲윤형철 신화 대표와 직원 이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신화 제공 더 큰 문제는 국내 대형 유통 채널 MD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해 납품·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홈쇼핑업체 생활부문장이 이혼한 전처(前妻)의 생활비 9억원을 협력업체에서 받아내거나, MD가 “아버지 도박 빚을 해결해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챙겨 적발되기도 했다.



』

[단독] 공정거래원 “롯데마트 갑질로 48억 전가”

박○○기자

입력 2016.01.17 14:20

공정위,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조사 착수

이○○기자

입력 2016.01.12 10:46 수정 2016.01.12 15: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MD(상품기획자)가 이른바 상품권깡(할인환매)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 면직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톱으로 올린 제목은 「잔머리 놀랍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왕」이다. 기사의 원 제목 「[단독] ‘갑질논란’ 롯데마트 상품기획자, 상품권깡 통해 금품받아 … 롯데 “해당 직원 면직”」이나,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제목 「상품권깡으로 돈 뜯어 … 롯데마트 “그 직원 면직”」과는 확연히 차

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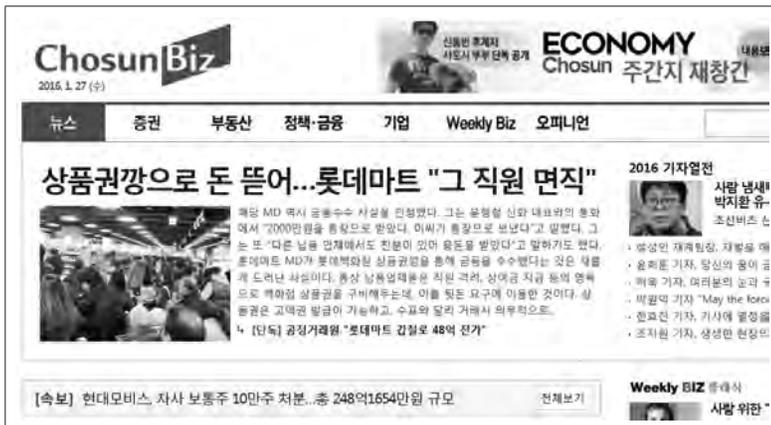
롯데마트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를 롯데마트 기업 전체의 문제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그 표현도 자극적이어서 해당 기업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기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공급받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삼겹살 갑질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달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위 기사 말미에 달린 「[단독] 공정거래원 “롯데마트 갑질로 48억 전가”」, 「공정위,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조사 착수」라는 관련기사 제목이 그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관련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신문과는 달리 온라인 신문은 기사를 하나씩 눌러보는 매체의 특성상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은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보도준칙」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조선비즈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6 - 3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6년 1월 20일자 「英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英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

Published 2016.01.20 09:29 Updated 2016.01.20 09:34

영국의 출입국사무소가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는 입국자들을 추려내려고 아내의 속옷사이즈와 색깔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금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고서 (Review into the welfare in detention of vulnerable persons)'에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위장결혼 부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남편에게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에서 올린 이 파일에는 이어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당위성과 적절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앨리스테어 카마이클 스코틀랜드 장관은 "모욕적"이라고 설명하며 "28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 나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123rf.com)

해당 보고서는 전 교도소 및 보호관찰관인 스테판 쇼(Stephan Shaw)가 출입국 및 복지 문제로 구금됐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khnews@heraldcorp.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영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가려내고자 남편에게 부인의 속옷사이즈와 색깔을 묻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질의 대상은 ‘가정방문을 통해 남편에게 사생활이 침해될만한 질문을 했다’는 기사의 한 대목처럼 이미 입국해서 함께 사는 부부 가운데 남편이다.

그런데도 제목을 ‘아내 속옷 사이즈, 색상 알아야 입국 허용’이라고 달아 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누리려는 의도라 하겠다. ‘국제결혼을 한 남자’라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나 대상이 되는 듯이 표현해 매우 황당한 짓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사와 무관한 반라 차림의 여성이 자신의 브래지어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성적(性的)인 함의를 풍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에서 벗어나 제목을 뽑으면 결국 독자를 속이는 일이 되고, 언론으로서 신뢰를 잃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2015-312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태석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5년 8월 12일자 「방송서 '노숙웃' 인증한 女 배우, 민망 의상」 기사의 제목 및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08.12. 15:21 캡처>

『[화보] 속옷 안 입고 TV에 출연한 크리스틴 스투어트 ‘천조국의 위엄’』

[일간스포츠] 입력 2015.08.12 오전 11:16:03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11일(현지시간) 지미 펠론 쇼에 출연했다. 가슴이 다 드러나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세를 바꿀 때 마다 속살이 은근하게 보여 섹시함을 더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

<[http://isplus.joins.com/article/754/18434754.html?cloc= ispluslentlisplus_art_mustclick](http://isplus.joins.com/article/754/18434754.html?cloc=ispluslentlisplus_art_mustclick)>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의 캡션 원문은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8월 11일 뉴욕시 록펠러 센터에서 진행된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펠론’을 찾았다”는 내용이다.(Actress Kristen Stewart visits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 at Rockefeller

Center on August 11, 2015 in New York City.)

그러나 기자는 이를 번역하면서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세를 바꿀 때 마다 속살이 은근하게 보여 섹시함을 더했다”고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가필하였고, 제목은 한 술 더 떠「[화보] 속옷 안 입고 TV에 출연한 크리스틴 스투어트 ‘천조국의 위엄」이라고 달았다. 게다가 편집자는 이를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을「방송서 ‘노속옷’ 인정한 女배우, 민망 의상」이라고 붙였다.

해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사진의 주인공인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는 유명 사회자 지미 펠론이 진행하는 美 NBC 인기 심야 토크쇼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론(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8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American Ultra)」 홍보를 위해 출연, 시청자에게 재치와 웃음을 선사하였다. 스투어트는 펠론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많이 웃는 편이라면서 시중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펠론과 일종의 단어연상게임인 ‘워드 블러트’(Word Blurt)를 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스투어트가 방송서 ‘노속옷’을 인证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제목을 달았다. 스투어트의 의상이 가슴 쪽이 다소 깊게 파였고, 치마길이가 극히 짧은 것은 사실이나 방송 중에 속살이 보인 적도 없거니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패션업계에서는 통상 내의를 용도에 따라 언더웨어·파운데이션·란제리 등으로 구분하므로, 제목에서 언급한 속옷이란 결국 팬티와 브래지어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제목에 ‘천조국의 위엄’이란 표현까지 덧붙여 스투어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미국을 모독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 천조국은 연간 국방비로 1000조원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지칭하는 네티즌 속어이다. 아울러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 뉴스스탠드에는 온통 여성의 벗은 모습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나 편집자의 주관적 가치 및 판단에 따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

(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84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11월 12일자(캡처시각) 「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제목의 기사와 사진 외 3건 및 네이버 뉴스 스탠드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1.19. 14:16>

1) 「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Published 2015.11.18 13:57 Updated 2015.11.18 13:57

『



(유튜브)

최근 유튜브에는 ‘테니스 경기 중 팬티 갈아입는 여자선수’ 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2006년 열린 프렌치 오픈 여자 싱글 2라운드 쉬는 시간에 엘레나 얀코비치 선수가 자리에 앉아 수건으로 하반신을 가린 채 속바지를 갈아입고 있다. 수건이 벗겨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옷을 갈아입는 데 성공한다.

이날 그녀는 세트점수 2승1패로 바르톨리를 누르고 3라운드에 진출했다.

(khnews@heraldcorp.com)』

2) 「커플, 아침부터 기차역에서 누가 있든 말든」

Published 2015.11.17 14:23 Updated 2015.11.17 14:24

『독일의 한 커플이 이른 아침에 베를린의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이 찍혀 기차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한 승객이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공개되자마자 일파 만파로 퍼졌다.



(유튜브)

비디오에 따르면 남성은 택시도를 입고 있고, 여성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채 벽에 기대어 성관계했다.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계속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3) 「그곳이 젖은 여배우 도대체 뭘 했길래..」

Published 2015.11.14 15:34 Updated 2015.11.14 16:23

『



스파이스 걸스 가수출신이자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최근 단정 치 못한 옷매무새로 화제가 되고 있다.

빅토리아 베컴은 지난 9월 그녀가 차린 런던의 한 부티크 샵에서 나오는 길에 바지 지퍼 부분이 눈에 떨 정도로 젖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략)

한편, 그녀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1위에 뽑혔다. 영국 오렌지 뉴스는 빅토리아 베컴이 2014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2014 톱 기업인(Britain's Most Successful Entrepreneur of 2014)'에 선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Mirror)

(khnews@heraldcorp.com)』

4) 「미녀 파이터 경기중 알몸 공개」

Published 2015.11.09 13:38 Updated 2015.11.09 15:21

『미국의 프로 레슬링 단체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의 여자 프로 레슬러들이 경기하던 중 한 레슬러의 경기복이 벗겨지는 헤프닝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두 레슬러가 가까이 붙어서 경기를 벌이던 중 한 선수의 옷이 다 벗겨져 완전히 나체가 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때 갑자기 한 남성이 공격을 가하는 여성을 발로 찼고, 그녀가 쓰러지자 나머지 선수는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온다.

(khnews@heraldcorp.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코리아헤럴드 2015년 11월 23일자 뉴스스탠드에는 선정적인 기사와 사진들이 다수 배치돼 있다.

위 1)「미녀 테니스 선수, 경기 도중 ‘속옷’ 벗더니...」 제목의 기사는 테니스 선수 엘레나 얀코비치가 지난 2006년 프랑스오픈대회에서 경기 도중 쉬는 시간에 수건으로 하반신을 가린 뒤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내용인데, 마치 의도적인 노출이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을 달았다.

2)「커플, 아침부터 기차역에서 누가 있든 말든」 제목의 기사는 2014년 9월 여러차례 국내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3)「그곳이 젖은 여배우 도대체 뭘 했길

래..」 제목의 기사는 역시 2015년 9월에, 4)「미녀 파이터 경기중 알몸 공개」 제목의 기사는 5월에 각각 보도된 내용이다. 특히 4)기사는 해당 동영상도 함께 게재했는데, 영상이 끝난 뒤 각종 폭력 및 여성의 노출 영상으로 연결된다. 위 기사들의 상당수는 나흘 후에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눈에 띄게 편집돼 있다.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11.23. 16:20〉

다른 언론사가 이미 보도했다 하더라도 몇 달, 또는 심지어 8년 여가 지난 기사를 뒤늦게 보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선정적인데다 시의성마저 떨어지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한데 모아 장시간 주목도 높은 곳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4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아이닷컴 발행인 조상현

주문

한국아이닷컴(sports.hankooki.com) 2015년 3월 11일자(캡처시각) 「서양女와 차속에서 ‘첫 경험’ 스타 결국」 제목 등 <주간BEST기사>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아이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간 BEST기사 연예 코너>

...이다. 기원과 다정한 셀카 공개 "평원한 거였음"
 유승민, 무병칭 '뒤배' 비
 교 열거 공개 "공복" 열
 백지영, 강석차성동해
 합박 미소 현상 "성"
 2015.1.25-5.10 소피미슬론

- '화장' 김효정, "극 중 치열한 장면 아찔답게 표현..."
- '화장' 김효정, "죽어가는 환자 후 선택 결정하기..."
- 수치, SNS에 반지도, 신곡 정장 "우승 시미?"
- 현아, 기원과 끈끈한 우정 개시 "오늘 좋아요"
- 결상훈, 대학 시절 서울에 걸 15세의 전상은?
- '화장' 연심기, "책 찬 빌랄같은 내연, 연기되느라"
- '화장' 김규리, "촬영장에서 미모 전사 때문에 앞..."
- 서강준, 갈색 눈동자의 유혹-"눈보라 캠페" 등극

주간 BEST 기사

연예	스포츠	라이프
서양의 19세에 서예원이 기간후... 결약	홍남도 날가 일어난 호스피타... 이별사	전도리연... 서예원 불문나 총격 언제?
호리, 위간남의 알 품은 방문차... 이별사	김소미이 인아 홍남도 똥에 인거... 귀족	
시강준과 차 속에서 첫결합 스타 결국	구속 수감된 스타 불연 아내가... 승격	
이해원 부작(해) '말풍의' 폭포성 불기?	세남의와 살해의 노출스타 불리문 살해?	
김민희 화살 만나... 클라라 승격 별각?		

불만한 연재물
 - TV 동보기
 - 방송기 기사도
 - 올단유적

★ 시사각각
 - 11월을 찾아라
 - 이 영화 불리달려

KoreaHotel.com
 CHAMPIONS LEAG

〈주간 BEST기사 라이프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 SNS에 범죄는 신의 장전 "부은 시미" 경상문, 대학 시절 서울에 집 15대의 진실은? '화장' 김규리, "촬영장에서 미모 전시 때문에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디, 카빈에 신신한 무설 세서 "모뎀 주미요" '화장' 안경기, "꼭 산 방광같은 내면, 연기하느라" 서강준, 광역 운동자의 유혹 "동뽀 광배" 중국 	<p>주간 BEST 기사</p> <p>연예 스포츠 라이프</p> <p>장성환 열는 스타트업 공익한 반박까지</p> <p>성규재 수없이 포른노 상업이 다- 김광</p> <p>유격자 목소 불발설 속 넘다가- 빌라</p> <p>한국에 시집을 팔때이동- 거역 불견다</p> <p>원근뽀뽀 즐기는 음년호- 활적인 연니를</p> <p>만 차게 먹는 한국인 유용한 근자 미유?</p> <p>30-34세 김아가 남편 하지는- 활적</p> <p>남친 남자들과- 매의사의 총격 불발설</p> <p>홍익인문 디제쇼 이전 한국서도- 활적</p> <p>포유로 근무시간 도박에 상한계까지</p>
<h2>걱정 끝!</h2>		
<p>불만한 전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돌보기 방송가기상도 물뽀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시각각 Imm를 찾아라 이 범죄 불려달라 		
 <p>[JACI] 냉권화 최강의 권력 권도 "워터 권가라 하니영"</p>	 <p>[JACI] '왕배' 번즈열 감독 "전력의 권도려이 호만다"</p>	 <p>[JACI] 권족의 닥음, 번즈열 로 권어 상키다</p>

〈<http://sports.hankooki.com>〉

〈주간 BEST - 연예〉

『이효리 화보 공개, 보디페인팅으로 상반신 완전 노출에 ... '파격적'』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3.10 11:40:05 수정시간 2015.03.10 17:18:42



파격적인 이효리 화보가 공개돼 화제다.

패션잡지 W 코리아는 지난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타투이스트 노보(NOVO)와 이효리가 함께 한 보디페인팅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효리 화보에서 이효리는 특유의 강렬한 눈빛과 타투이스트 노보

가 연출한 섹시한 보디페인팅과 어우러져 고풍적인 매력을 뽐냈다. 이어 이효리 화보에서 이효리는 군살 없는 몸매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화보 몸매 대박”, “이효리 화보 타투 매력적이다”, “이효리 화보 정말 섹시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효리와 타투리스트 노보가 함께 한 화보는 W 코리아 3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美 사막서 서양여성과 첫 베드신 … 나체로 책읽는 모습에 깜짝”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3.09 16:31:02 수정시간 2015.03.09 17:46:59

배우 박정민이 서양 여배우와 첫 베드신을 촬영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박정민은 9일 오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태양을 향해 쫓라’(제작 필름라인 배급 조이앤씨네마)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영화 관련 에피소드를 밝혔다.

극 중 서양 여배우와 베드신을 찍은 박정민은 “베드신이 처음이었다. 원래는 장소가 방안이었는데 황량한 사막 버려진 트럭 위에서 하게 됐다. 그쪽으로 끌고 가 당황했다”라며 “외국인 여성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했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다. 나체로 차 안에서 책을 보시던 그 모습이 이국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민은 “전에 없던 예민함이 나와 스태프들에게 조금은 예민하게 굴었던 것도 같고, 처음으로 최소 인원만 남아 찍어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 다 보고 계시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태양을 쫓라’는 세상의 끝까지 떠밀려 LA까지 찾아 든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감성 느와르 영화로, 강지환의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극 중 강지환은 사랑이라는 꿈마저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남자 존, 윤진서는 존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재즈 보컬리스트 사라, 박정민은 존의 둘도 없는 친구 첸, 안석환은 조직 보스 역을 맡았다. 오는 19일 개봉한다.』

『[스타인터뷰] 강한나, 알수록 더 호기심이 들게 하는 ‘천생 여배우’』

‘순수의 시대’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 주목받아
기대 이하의 반응, 모든걸 쏟아부었기에 후회 없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포츠한국미디어 최○○ 기자 j***6@hankooki.com

이○○ 기자 f**@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3.15 08:00:53 수정시간 2015.03.15 08:54:10

[스포츠한국미디어 최재욱기자] 단순히 노출로만 포장할 수 없는 여배우였다.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 제작 화인웍스) 개봉일인 지난 5일 서울 충무로 스포츠한국 편집국에서 만난 배우 강한나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상대방을 빠져들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수수한 듯한 외모와 달리 내면은 용암처럼 열정이 펄펄 끓었고 연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기까지 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이 연기한 껍질을 벗길수록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는 가희와 은근히 닮은꼴이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이란 단어가 딱 들어맞았다.

‘순수의 시대’는 언론 시사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얻고 있다. 강한나는 영화 속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혼신의 열연을 펼쳤지만 언론이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다. 강한나의 연기에 대한 칭찬은 나오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아쉬울 법하지만 강한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회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여전했다.

“리뷰들을 계속 읽었어요. 언론의 반응은 아쉽지만 다행히도 일반 관객들에게서는 호의적 반응도 많아요. 영화를 보고 울었다면서 감동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저같은 20대 여배우가 이처럼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가희 역을 꼭 맡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가희가 느끼는 희로애락, 복수심 등 드라마틱한 감정들을 정말 잘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캐릭터에 올인해서 정말 나

의 모든 것을 후회없이 다 쏟아 붓자는 마음이었어요. 이 영화를 발판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기에 결과는 관객에게 맡기고 싶어요.”

영화 ‘순수의 시대’는 조선 개국 7년, 왕좌의 주인을 둘러싼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아름답지만 가시를 품은 사연 많은 기녀 가희(강한나)를 둘러싸고 강직한 장군 김민재(신하균), 색에 빠져든 김민재의 아들 진(강하늘), 왕좌에서 밀려난 이방원(장혁)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독한 사랑을 그린 치정사극.

강한나는 복수의 일념하에 세 남자 사이에 뛰어드는 독을 품은 팜프파탈 가희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폭 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섬세한 멜로가이민재, 욕정에 충실한 진, 대의가 우선인 이방원. 강한나는 어떤 남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을까?

“누가 좋다고보다 세 캐릭터가 각자의 성격이 뚜렷하고, 내면에 모두 상처가 있는 인물들이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걸 갖고 있는 듯하지만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더욱 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캐릭터랑 연기할 때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 인물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목적이 뭐고, 감정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3가지 이상을 나눠서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인물을 잘 표현해 낼 수 있을 거 같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한나는 연기에 대한 칭찬을 건네자 모두 함께 연기한 세 남주인공 신하균, 장혁, 강하늘 덕분이라며 겸손해했다. 사실 세 남자 배우와 모두 다 베드신을 촬영해야 했기에 여배우로서 몸과 마음이 힘든 촬영장이었다. 신하균, 장혁뿐만 아니라 나이는 어리지만 연기경력은 더 많은 강하늘은 이런 점을 알고 촬영장에서 모두 강한나를 극진히 배려했다.

“신하균 선배님은 마치 자기 친여동생 대하듯 잘 챙겨주셨어요. 촬영할 때는 가희로서 사랑받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후배 연기자로서 사랑받은 것 같아요. 내가 베드신 이외 다른 장면에서 감정연기를 못 해버리면 베드신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도와 달라 말하니 그 점을 좋게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마지막 물속에서 내 얼굴 클로즈업 장면을 찍을 때도 화면에 안 나오는데도 일

일이 감정 연기를 해줘 감동했어요. 장혁 선배님도 붙는 신이 많지 않아 자주 뵙지 못했지만 볼 때마다 따뜻하게 조언해주시고 힘을 북돋워주셨어요.”

강한나가 연기한 가희는 복수심으로 푹푹 뭉친 팜프파탈이었다가 영화 후반 민재의 순수한 사랑에 감복해 자신도 불같은 사랑에 빠져들어 파국을 맞는다.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남자를 유혹해 파멸시킨 ‘나쁜X’이고 요즘 말하는 ‘민폐녀’일 수도 있다. 27세 여성 강한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죽음도 불사하는 ‘순정파’ 민재 같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요즘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순정파’ 남자가 좋아요. 이해타산 따지고 조건 따지며 ‘밑당’을 하는 요즘 연애 추세는 저와 맞지 않아요. 저의 감성은 옛날 사람인 듯해요.(웃음) 나는 가희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불쌍한 여자죠.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그 아픔을 처음으로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민재예요. 겉은 강하고 속은 약한데, 강하려고 애쓰는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희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쁜 여자로만 비쳐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희의 인간적인 모습과 여린 모습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공감 이 잘 됐나 궁금해요. 어떠셨어요?(웃음)”

‘순수의 시대’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낸 배우 강한나. 신인답지 않게 인터뷰 내내 막힘 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인간 강한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다른 배우들처럼 자기의 색이 뚜렷하기보다 여백의 미가 느껴졌다.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순백의 도화지 같다고나 할까. 알수록 호기심이 더 들게 하는 ‘천생여배우’였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웃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리고 소심할 것 같으면서도 대범한 면이 나와 저 자신도 놀랄 때가 있죠. 가희가 가진 극단적인 모습이나 복잡한 모습이 내 안에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한나만 보면 여성적인데 성이 붙으면 “강한” 나’잖아요.(웃음) 차기작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순수의 시대’ 모든 일정이 끝나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여배우가 되고 싶은지는 한줄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건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캐릭터의 트라우마나 결핍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폭력·마약·이혼 … 연예계로 보는 씁쓸한 단면

연예계만의 일 아냐 …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모습 반면교사로 삼아야”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16 13:08:24 수정시간 2015.03.16 13:08:24

연초부터 각종 스캔들로 시끌시끌하던 연예계가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추문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20여 년 연예계 대표적인 잉꼬부부인 줄 알았던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 충격을 주는가 하면, 마약사건, 욕설 파문, 이혼 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연예계의 이면에 놓인 어두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대중의 관심은 집중되고, 인터넷 세상은 요동을 친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일의 대부분은 연예계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연예계라서 뉴스가 되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중문화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연예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조명을 받는 만큼 평소 더욱 철저하게 자신과 주변을 관리해야 할 것이고, 대중은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정폭력·이혼·자살

지난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11일에는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았다.

김동성이 결혼 11년 만에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그가 과거 SBS TV 유명인들의 부부토크쇼 ‘자기야’에 출연했던 사실과 연계되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2009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자기야’에 출연한 부부 중 8쌍이 잇달아 방송 이후 이혼을 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김동성 부부가 그 9번째 사례로 거론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개그맨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가 32년의 결혼생활이 ‘포로 생활’ 같았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해 서세원의 서정희 폭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20여 년 연예계 잉꼬부부를 대표해왔다. 공개적으로 화목하고 예쁜 가정의 모습을 노출해오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서정희는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불화, 이혼은 결코 연예계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자살 등 한국의 가족·공동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는 1970년 0.4에서 2003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2.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1.9)보다 높았다.

자살률(10만 명당 자살건수)은 1983년 8.7에서 2000년 13.6, 2011년 31.7까

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평균 12.1)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한류그룹 카라의 멤버를 뽑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가수 지망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연예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 또다시 마약을 ... “스트레스에 돌발 행동”도

지난 13일 텔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예인들이라고 특별히 마약을 쉽게 구하는 것일까.

지난달 관세청은 2014년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해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류 71.7kg를 압수했다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50.8kg(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 대마가 2.7kg(66건) 순이었다.

갈수록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욕설 파문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배우 이태임의 스캔들은 개인적으로 처신을 잘못된 사례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태임의 소속사는 “이태임이 그간 특정 신체부위가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악성 댓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의 조기 종영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와중에 컨디션 난조로 돌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임도 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평소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대해온 것을 참다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섹시스타’라 불리며 몸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여배우가 악성 댓글과 모욕적인 시선 등에 시달리면서 받았을 스트레스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집트 피라미드서도 포르노 촬영』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09 13:54:39 수정시간 2015.03.09 13:54:39



이집트 유명 피라미드에서도 포르노 동영상이 촬영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아우리타라는 여성이 기자 피라미드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남성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기 전 유적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낸다.

맘두 알다마티 이집트 유물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불법으로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애초 배경이 덧붙여진 것이라며 동영상이 유적지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영상이 널리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일간 알마스리 알음은 지난해 온라인에 공개된 10분짜리 이 동영상의 지역 보안 책임자의 목인 아래 촬영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카이로 인근 기자 지역에 있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인근에는 유명한 스팅크스가 있다.

앞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에서도 아시아 여성의 포르노 사진을 촬영하던 프랑스 남성 3명과 누드 사진을 찍은 미국인 자매가 벌금을 내고 추방된 바 있다.』

『젊은男과 즐기는 중년女 ... 발칙한 언니들

뮤지컬 ‘쿠거’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09 15:44:51 수정시간 2015.03.09 15:44:51

미국 오프브로드웨이에서 40~50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뮤지컬 ‘쿠거’가 내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오른다.

‘쿠거’(Cougar)는 북미지역에서 ‘퓨마’를 가리키는 말로,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쿠거의 습성에 빗대 속어로 젊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나이 든 여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연하남과 교제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뮤지컬은 중년의 싱글 여성 ‘릴리’, ‘클래리티’, ‘메리-마리’가 젊은 남자들과의 사랑과 연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가고, 나이듦과 우정, 사랑, 욕망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다.

이 작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프브로드웨이에서 300회 이상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작가 도나 무어가 8년간 대본과 음악을 만들고 연출가 겸 안무가 린 테일러 코벳이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뮤지컬에 관심이 적은 40~50대 여성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 공연에서는 뮤지컬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배우 박해미·김선경(랄리 역)과 최혁주(클래리티), 김희원(메리-마리)이 세 명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이들과 만나는 ‘멀티맨’으로는 뮤지컬 배우 이주광, 조태일이 나선다.

뮤지컬 ‘셜록홈즈’의 연출가 노우성이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공연은 4월 10일~7월 26일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관람료는 6만원. 문의 ☎ 1544-1555.』

『어느 콜걸의 비밀일기』 작가 “나는 콜걸이었다”

(서울= 연합뉴스)

입력시간 2015.03.17 09:27:24 수정시간 2015.03.17 09:27:24

영국 런던의 매춘부의 일기를 원작으로 한 영국의 인기 드라마 ‘어느 콜걸의 비밀 일기’의 실제 주인공이 자신은 콜걸 출신이 맞다며 옛 남자 친구를 상대

로 명예훼손에 따른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브룩 매그난티(39)는 법의학자로 2003년부터 ‘벨드 주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콜걸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두 권의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배우 겸 가수인 필리 파이퍼 주연의 TV 드라마 ‘어느 콜걸의 비밀 일기’로도 제작됐다.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블로그 작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켰지만 매그난티는 지난 2009년에야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매그난티는 당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콜걸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매그난티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자 책에서 ‘청년’이라고만 언급됐던 그녀의 옛 남자 친구 오언 모리스는 2013년 매그난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모리스는 자신과 사귄 당시 매그난티는 콜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국 공군 장교 출신인 자신의 군복무 경력과 명예가 손상되고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에든버러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매그난티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모리스의 주장은 “작가로서의 나의 정직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번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내가 콜걸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녀는 이와 함께 과거 콜걸로 일할 당시의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도 공개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아이닷컴(스포츠한국)은 초기화면 <주간BEST기사> 목차 난에 선정적인 제목을 다수 노출하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제목과는 사뭇 다르다.

<주간 베스트> 연예 코너의 「효리, 외간남자 앞 훌쩍 벗은 채 ... 아빨싸」는

가수 이효리가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보디페인팅으로 상반신을 노출한 것일 뿐 완전 나체는 아니다. 「서양女와 차속에서 ‘첫 경험’ 스타 결국」은 배우 박정민이 영화 ‘태양을 향해 쫓라’에서 서양 여배우와 첫 베드신을 촬영한 에피소드를 밝힌 내용일 뿐이다.

「세남자와 성행위 노출스타 놀라운 실체?」는 조선 초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 ‘순수의 시대’에 기녀 가희로 출연한 강한나가 강직한 장군 김민재(신하균), 색에 빠져든 김민재의 아들 진(강하늘), 왕좌에서 밀려난 이방원(장혁)의 얽히고설킨 관계에서 팜프파탈 역을 맡았다는 영화이야기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데도 연예인이 현실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한 것처럼 독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

〈주간베스트〉 라이프 코너의 「젊은男과 즐기는 중년女 … 발칙한 언니들」은 뮤지컬 ‘쿠거’에서 중년의 싱글 여성 ‘릴리’, ‘클래리티’, ‘메리-마리’가 젊은 남자와의 사랑과 연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간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낮선 남자들과 … 여의사의 충격 성생활」은 영국의 법의학자가 박사과정을 밟기 위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콜걸로 활동한 경험담을 소개한 내용이다. 제목만 보아서는 여의사가 현재 문란한 남자관계의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으며, 여의사들의 직업윤리와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청소년층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뉴스의 흥미요소를 도외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의 대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영승

주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5년 3월 22일자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03.22 10:40〉

『강남서 아우디 5중 추돌 사고 ... 스피카 양지원 “사고난 걸그룹 멤버, 저 아닙니다”』

온라인뉴스팀

입력 2015.03.22 14:11:42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이 21일 발생한 강남 5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22일 양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21일 자전거 타고 잠시 뭘 먹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5중 추돌 사고가 났고 동승자가 저인 것 같아 기사를 낸다고 했다”며 “괜 분들이 걱정하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니까 오해와 걱정하지 말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채널A는 21일 <종합뉴스>를 통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내며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사고를 낸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가 유명 걸그룹 멤버”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채널A는 모자이크 처리한 양지원의 사진을 사용했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인터뷰를 통해 “조수석 여성의 이름에 알파벳 J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지원은 “확신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저라고 기사를 내겠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나중에 기사를 확인해보니 음주운전 동승자에 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름까지 정확히 거론되면 회사에서 대응한다고 했다”며 자신이 사고에 연루된 사람이 아님을 밝혔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 3월 22일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는 제목이 걸그룹 스피카 양지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을 아는 이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제목과 사진만 보면 양지원이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 방송 매체가 이 같은 내용으로 단독 보도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가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이 기사를 열면 제목은 「강남서 아우디 5중 추돌 사고 … 스피카 양지원 “사고난 걸그룹 멤버, 저 아닙니다”」로 돼 있다.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이 강남 아우디 5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뉴스스탠드의 제목과 정반대에 가까운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제목을 쓰는 것은 스피카 양지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했음인지 「만취 아우디 5중 추돌 … 스피카 양지 …」라고 양지원의 이름을 끝까지 쓰지 않았다. 글자수가 많아 한 자 생략했다고 해명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을 왜곡시키면서 당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과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5년 4월 8일자(캡처시각) 2015년 4월 8일자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

기사입력 2015.04.08 07:40

[헤럴드경제] 남편의 내연녀를 친구들과 함께 집단폭행하는 여성이 포착돼 충격을 줬다.

6일(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중국 산시성(山西省) 다통(大同)의 쇼핑몰 앞에서 한 여성이 속옷까지 벗겨진 채 대여섯명의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이 여성은 머리채가 뜯기고 얼굴과 몸에 주먹과 발길질로 공격을 받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됐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할 뿐이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들의 폭행을 묵인하는 분위기다.

바람피운 남편의 아내 친구들은 내연녀의 머리까지 바닥에 찍고 폭행한다. 이들은 쓰러진 여성이 남편을 유혹해 바람을 피웠다면 공공의 정의를 위해 폭행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결혼한 주부 주 평(35)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때리는 것은 그 여성들의 권리”라며 “정부가 남편을 유혹하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정부나 내연녀를 직접 자기 손으로 폭행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수 개월 전에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윈저우(溫州)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 한 여성이 일련의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을 뜯기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캡처시각 2015.04.09 02:3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4월 8일자에 외신을 인용해 「“감히 내 남편을 넘봐?” ... 불륜女, 길에서 속옷 벗기고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불륜녀에 대한 집단폭행 기사와 사진을 실었다. 대로인 쇼핑몰 앞에서 린치 당하는 모습의 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때리는 것은 그 여성들의 권리”라는 구경꾼의 소감이 곁들여져 마치 집단폭행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또한 이 기사를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에 톱뉴스로 올리고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까지 곁들였을 뿐 아니라 「女 집단폭행, 길에서 팬티까지 벗긴채...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의심을 사는 등 선정주의적 편집양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 같은 온라인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편집변경 및 선정주의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4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5년 9월 17일자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09.17. 19:03>

『이혼연습2』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 경악'

입력 2015.09.17 14:42:00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될 아이를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일 방송되는 'SBS 스페셜-이혼연습 2'에서는 이혼이라는 삶의 선택에 놓여있는 부부들이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연극배우 전수아,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이혼”을 연습하다. 전수아 씨는 한 광고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소개되었다. 8년이 흐른 지금,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는 아이를 위한 이혼연습을 시작한다.

아이 때문에 살고, 아이 때문에 싸운다는 부부.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녀는 자녀의 양육문제로 전쟁 중인 부부, 그리고 부모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이혼의 기술을 찾아 나선다. 실제로 이혼을 겪은 이들은 어떤 해법을 알려줄까.

어느 어머니의 절규 … “납치해간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평범한 주부 최인해씨(가명, 30세)는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에서 성관계 동영상 발견한다. 주인공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였다.

충격적인 장면에 최 씨는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에게 닥친 시련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남편과 별거 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이가 납치를 당한 것이다. 복면을 쓰고 아이를 데려간 범인은 다름 아닌 최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아이를 놓고 벌어진 부모의 살벌한 전쟁! 그 안에서 아이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천사 같던 아들의 두 얼굴

이혼 후 홀로 어린 남매를 키워온 한명철 씨(가명, 35세).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진 않았지만 남매가 잘 따라주는 것을 위안 삼았다. 그런데, 재혼한 엄마의 출산소식을 접한 후,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천사 같던 아들의 얼굴은 변하고 말았다. 시종일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여동생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아이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분노는 아빠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혼,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20살에 결혼해 사춘기 남매를 둔 젊은 엄마 박수진 씨(가명, 35세).

그녀는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 사춘기인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박 씨는 이혼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거짓말을 믿고 그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혼을 알리지 않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일까? 과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 결혼이 끝나도, 부모의 삶은 끝이 아니다. 20일 방송되는 ‘SBS 스페셜-이혼연습2’ “이혼을 마주한 아이들” 편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이혼의 민낯을 파헤쳐본다.

동아닷컴 이○○ 기자 m***y82@donga.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SBS 스페셜-이혼연습 2’을 다룬 것으로, 이혼이라는 삶의 선택에 놓여있는 부부들이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며 이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 발견 ‘대학 선배와 충격’」으로 되어있는 제목은 이 기사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이 제목대로라면 대학 선배와 성관계를 한 남편의 불륜을 다룬 기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기사의 줄거리와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낚시성 제목은 정보를 잘못 전할 뿐 아니라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2015-119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北日報 발행인 서창훈

주문

全北日報 2015년 6월 15일자 4면 「극단적 선택 부른 ‘노-노 갈등’/익산 사회적 기업 행복나누미 근무 60대 직원 한노총-민노총 대립 속 자살 기도 끝내 숨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노조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된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나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에서 근무하던 조모 씨(61)가 지난 12일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끝내 숨을 거뒀다.

평생 버스운전을 하다가 퇴직 후 이곳으로 직장을 옮겨 운전원으로 일해온 조 씨는 회사에선 만형으로 불리며 직원들 모두가 잘 따르던 선임이었다.

그렇게 가족 같던 분위기속에서 일해온 직원들이 2년전 노조를 결성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었다.전체 80여명 중 50여명이 한국노총, 2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지난해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에 한국노총 직원들은 동참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만 시청 앞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장소를 시청 앞에서 회사 앞으로 옮긴 민주노총 가입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시해 왔다고 한국노총 소속 직원들은 말한다.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조 씨는 만형으로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에는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회사내에서 후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접촉사고는 경찰 사고접수로 이어졌고, 조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조 씨는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따른 자책에 힘들어했고, 갈등의 연장선에서 자신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조 씨의 부인은 “음독을 하는 날까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모습을 보였었다”며 “이렇게 만든 직원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오열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사와의 문제를 직원들로 확산시키고 결국 후배들이 잘 따르던 형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면서 “우선 유족들과 함께 민주노총 직원들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회사차원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말을 아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奎北日報의 위 기사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누미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조 모 씨(61)가 지난 6월 12일 음독을 시도해 하루 만에 숨진 사건을 다룬 사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조 씨는 2년 전 회사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각각 결성돼 직원 80여 명이 양쪽으로 갈려 갈등을 일으키자 ‘만형’으로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후배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후배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에 따른 자책에 힘들어했고, 갈등의 연장선에서 자신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자살 경위를 정리했다. 하지만 조 씨의 자살 이유가 후배 노조원들의 갈등이라거나,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징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사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조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것도 『피해』를 본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사에는 없다.

조 씨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도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극단적 선택 부른 ‘노-노 갈등’이라는 큰 제목 밑에 「익산 사회적 기업 행복나눔미 근무 60대 직원 한노총-민노총 대립 속 자살 기도 끝내 숨져」라고 작은 제목을 달았다. 조 씨가 ‘노-노’ 갈등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자살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 씨의 자살 역시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재근

주문

慶南日報 2015년 6월 4일자 1면 「치사율 40% 메르스 ... 경남에도 서서히 업습/빛장 폴리먼 끝, 긴장감 고조」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고삐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언제 엄습해 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3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민들을 혼란케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현재 격리 대상자는 1312명이다. 전날 791명에서 한꺼번에 573명이 늘고, 52명은 격리가 해제된 결과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3차 감염자 1명을 포함해 5명이 늘어나 총 30명이 됐다.

정부 당국의 대처가 손발이 맞지 않고 이미 실행 중인 대책마저도 곳곳에서 구멍이 노출돼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복지보건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거점병원 7곳, 175병상(음압병상 13, 일반 격리병상 162)을 메르스 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경남의사협회는 4일 메르스증후군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도청에서 연다.

한편 사천지역 한 회사원이 중동 출장 후 고열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의심됐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경남도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접촉자 2명이 발생했으나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慶南日報의 위 기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책과 대응체계를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접촉자 2명이 발생했으나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

정반왔고, 『사천지역 한 회사원이 중동 출장 후 고열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의심됐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에서는 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는 확진 환자가 1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치사율 40% 메르스 …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이라는 어깨 제목 밑에 「빚장 풀리면 끝, 긴장감 고조」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메르스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갖게 하는 표현이다.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경남에도 서서히 엄습」, 「빚장 풀리면 끝」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위 제목이 40%로 적시한 메르스 치사율 역시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크게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일 뿐 실제 치사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일찍부터 소개됐던 터다.

급성감염병인 메르스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이 규정한 ‘질병 재난’의 범주에 포함된다. 준칙은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제13조-유언비어의 방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일보는 정확성이 강조되는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제목을 통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안을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5년 8월 11일자 19면 「신격호 총괄회장 알츠하이머 투병 ... 롯데가 분쟁 변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롯데가(家)가 골육상잔의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건강 상태가 이번 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3~4년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진단 직후부터 매일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의 창업자로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주요 지주사에 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분 행사와 우호 지분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일 귀국 전까지 일본에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지분과 종업원지주회 등의 도움을 받아, 신 회장과의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 전 부회장 편에 서서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면, 신 전 부회장이 우호지분 설득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신 총괄회장 명의의 '신동빈 회장 해임서'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명분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실질적인 지분 싸움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명분 싸움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배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로 모아지는 가운데, 건강 이상설에 휩싸여 있는 신 총괄회장의 영향력이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가 앞으로 최대 관심사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달 안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해 온다면 이를 수락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개최 요청이 없더라도 정관변경을 위해 이달 안에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개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사태로 한·일 양국에서 반(反) 롯데 정서가 높아지자 주총을 앞당겨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내 우호 지분 확보가 이미 끝난 만큼 표 대결을 펼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상정을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형제 간 주총 장 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건강 상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재계 등에 따르면 3~4년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진단 직후부터 매일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비록 기사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매일 치료약 복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미확인 전언형 술어를 사용해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취재원도 ‘재계 등’으로 표현된 익명이다.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신격호 총괄회장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때문에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6월 12일자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로 장례 준비 중.. 가족들 “박원순이 스트레스 줘 악화”..」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가족들 “용태 악화,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 강력 비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 아주경제,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입력 2015.06.12 00:13

‘메르스 의사’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의 가족들이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째 환자 ‘메르스 의사’ A씨는 지난달 27일 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건강했던 A씨가 최근 상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의사 A씨의 확진 판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30일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르스 의사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한 매체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씨가 뇌사 상태이다. 이미 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호흡 곤란 등이 있었지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의사, 얼른 나오세요” “메르스 의사, 그냥 얼른 나오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주경제)= 『메르스 의사, 뇌사로 장례 준비 중..가족들 “박원순이 스트레스 줘 악화”..건강한 사람도 메르스 바이러스로 사망?

등록 2015.06.11 20:26 수정 2015.06.11 20:26

아주경제 이○○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35번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 38)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의사 A씨는 현재 30대 건강한 청년인데다 가벼운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앓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망한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는 평균 70대이고 모두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중병을 앓고 있었다.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중 의료진도 없다.

메르스 의사 A씨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도 쉽게 회복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한 30대 청년도 메르스 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한 관계자는 11일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젊은 친구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의사 A씨의 가족들은 메르스 의사 A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메르스 의사 A씨의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사 A씨에 대해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

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며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르스 의사 A씨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 메르스를 전파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박 시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 l***hyo@ajunews.com」

(스포츠조선)= 『메르스 의사 가족들 “용태 악화,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 강력 비판

기사입력 2015.06.11 19:37:35 최종수정 2015.06.11 22:35:22

메르스 의사 위독, 가족들 “박원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 약화” 주장 메르스 의사

‘메르스 의사’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 씨가 위독한 가운데, 가족들이 그 원인으로 박원순 시장을 꼽았다. 35번째 환자 ‘메르스 의사’ A씨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지난달 27일 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감염됐다. 하지만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건강했던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11일 한 매체를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메르스 의사 A씨의 확진 판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30일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르스 의사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평균 나이는 71.1세다. 폐렴과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메르스 환자는 총 122명이다. 퇴원한 메르스 환자도 7명으로 늘었다.

〈스포츠조선닷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가족들이 최근 해당 의사의 병세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11일 한 매체(또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뿐이다. 실제 한국일보는 11일 “박 씨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일보도 해당 의사 가족을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내용만을 전했다는 따름이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8일 해당 의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어제 정말 억울해서 더 아팠고, 밤새 잠을 못 자 괴로웠다”고 전해 박원순 시장 심야회견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해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메르스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병세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소문에 지나지 않은데, 위 기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사의 정정

2015 - 3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박노환
2. 쿠키뉴스 발행인 변재운
3. 경향신문 발행인 이동현
4.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동현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세정
8. 세계닷컴 발행인 차준영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성철

주문

연합뉴스(yomhapnews.co.kr) 2015년 5월 25일자 「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26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5월 25일자 「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된다”」 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는 이혼사유 될까」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되는 이유가?»」 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5일자 「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 이혼 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 세계닷컴(segye.com) 5월 25일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 돼”」 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5일자 「法 “아내가 수년간 부부관계 거부, 남편이 관계 회복 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안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 쿠키뉴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스포츠경향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세계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 이혼사유 안돼”』

송고시간 2015.05.25 12:50

“관계 회복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남편도 잘못”

(서울= 연합뉴스) 임○○ 기자=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동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5.25 12:50 송고

〈쿠키뉴스〉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 사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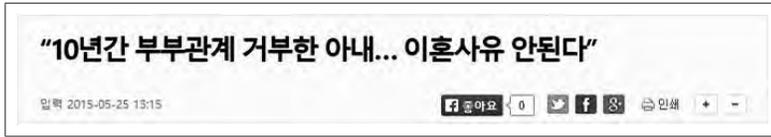
입력 2015.05.26 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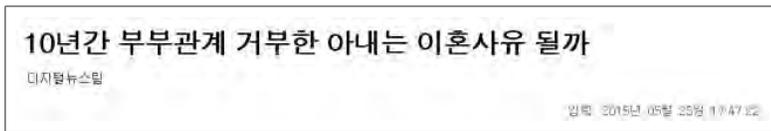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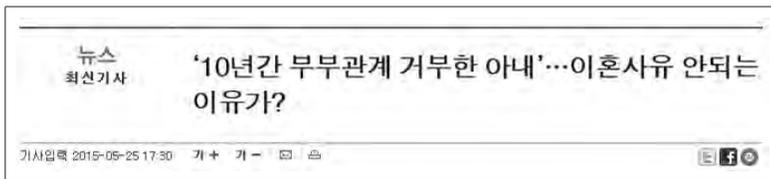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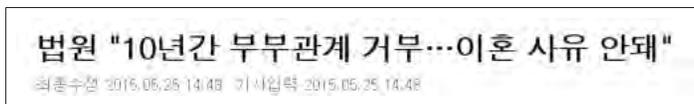
〈스포츠경향〉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세계닷컴〉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 돼”

〈파이낸셜뉴스〉

法 "아내가 수년간 부부관계 거부, 남편이 관계 회복 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안돼"

출처: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5.06.25 13:43 | 수정: 2015.06.25 13:43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르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았지만 그것이 피고(부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인지는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연합뉴스 등은 ‘피고가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단정했으며, 이 부분을 강조해 위와 같이 보도한 것이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십여년간 외도를 했고 외도 상대와 재혼하기 위해 부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다, 아이들 잘 안 돌본다, 집 안일 방치한다’ 등등 이유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한 줄 들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잠자리 거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잠자리 거부한다’ 한 줄에만 근거, 마치 이혼사유가 안 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닷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부연하여 판

결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 관련 보도가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것을 부각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메일을 26일 하오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 송부한 바 있다.

결국 위 기사는 판결문의 핵심에서 벗어난데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패소 이유로 단정하고, 기사의 정정 노력에도 게을리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⑤(기사의 정정)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서울고법 메일 내용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르2761 사건(부부관계 10년 부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던 것만 사실로 인정될 뿐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원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왔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을 기초로 하여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여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사진 게재

2015-3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영만

주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5년 9월 20일자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

Published 2015.09.20 11:12 Updated 2015.09.20 11:12

지난달 30일, 인도에서 17살짜리 소녀가 무려 27명의 남자들로부터 24시간 넘게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외신이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빗더미에 쌓인 집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소녀는 호텔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자 27명 중에 호텔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6명만 붙잡히고 나머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CCTV분석을 통해 범 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소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6명만 붙잡히고 나머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CCTV분석을 통해 범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khnews@heraldcorp.com)



(유유브/해럴드기사와 무관)

(khnews@heraldcorp.com)』

※참고 1: 코리아헤럴드 홈페이지 초기화면

The Korea Herald 대한민국

National Business Life & Style Entertainment Sports World

SUBSCRIBE PDF SMS/LMS MOBILE APP NEST 2015. 09. 20. (일)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

- 리비아 해안서 '난민 4천 500여명 구조'
- 사우디, 성지순례 안전에 10만명 투입...'테러위협' 긴장
- 10대, 부모에게 술 받아먹다 '음주 과다'로 사망
- 마약중독 숨진 남편 시신과 마지막 가족사진
- 美 금리등결로 신흥시장 일단 '안도'...'불확실성은 여전'

<캡처시각 09.20. 12:09>

※참고 2: 해당 기사 교체된 사진



〈캡처시각 09.30. 09:4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도에서 17살짜리 소녀가 무려 27명의 남자들로부터 24시간 넘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무려 27명에게 강간당한 女...왜?」란 제목을 톱으로 올리고 맨 다리를 드러낸 여성이 누워있는 장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제목을 눌러보면 기사와 함께 네이버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린 사진이 보다 확대돼 있다. 젊은 여성이 반나체로 누워 있는 이 사진엔 “(유튜브/해당기사와 무관)”이란 설명만 간략하게 달려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할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이런 선정적인 사진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에는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돼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 보도를 하면서 공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언론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직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헤럴드는 보도후 사진을 교체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이용자에게 노출돼 신속한 수정이 요구되는 온라인신문의 특성 상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목에 ‘강간(強姦)’이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단어이나 근자에 대다수 신문에서는 ‘강간’이라는 용어는 법률의 죄명으로 쓸 때만 사용하고 본문과 제목에서는 ‘성폭행’으로 완화해 사용하는 추세다.

원래 형법상의 ‘강간’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어,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에게 치욕적이고 그 범위가 좁으므로 외연을 넓혀 순화하는 뜻으로 ‘성폭력’으로 사용해 왔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 이후 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도 강간죄 처벌대상이 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강간’이란 어감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월 21일자(캡처시각) 「정신나간
女직원 “사장과 불륜, SNS생중계...”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6.01.22. 01:15〉

『女직원, “사장과 불륜현장, SNS에 생중계” ... 첩면피

기사입력 2016.01.21 19:03

[헤럴드경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과의 불륜현장을 SNS에 자랑하듯 올린 20대 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가 보도에 따르면 SNS상에서 몰리라는 이름을 쓰는 이 여성은 사장과 불륜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생중계한다. 아슬아슬한 의상을 입고 호텔 침대나 화장실 등에서 셀카를 찍으며 SNS에 공개했다.

또한, 이 여성은 ‘보너스를 두둑이 챙겼다.’ 등의 글들도 뻔뻔스럽게 게재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뉴스스탠드 1월 21일자에 「정신나간 女직원 “사장과 불륜, SNS생중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상하이스트 보도를 전제한 이 기사는 몰리라는 닉네임의 중국 여성이 자신의 회사 사장과 불륜 장면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자사 사이트 기사에 게재한 사진과는 달리 엉뚱한 사진이 올라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 본 결과 이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배우 배소은이 영화 ‘닥터’에서 과격적인 베드신 장면을 연출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구글 검색을 살펴보면 헤럴드경제가 과거에도 ‘아우디女’ 노출 기사 등에서 이 사진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정적인 기사에 아무 관련도 없는 국내 배우 사진을 얼굴을 노출시키며 사용하는 것은 배우 본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뿐 아니라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㉞(관계사진 게재),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91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주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5년 10월 30일자 「“취업시켜주면 늙은 사장님과 잠자리도 가능해”」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0.30. 22:15〉

『“취업시켜주면 늙은 사장님과 잠자리도 가능해”』

입력시간 2015.10.27 17:39

한 중국 여대생이 이력서에 ‘처녀성’을 준다고 적어 중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살 여대생은 최근 중국 취업 사이트에 ‘처녀 신입’이란 제목의 이력서를 게재했다.

여성의 이력서 상단 부분은 ‘쓰촨성 대학 재학, 희망근무처 청두, 희망직종 IT 프로그래머’라고 되어있어 다른 이력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이력서 기타 항목에 ‘처녀 신입사원, 이성과 교제 경험 없음,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았음, 좋은 자리(직종)를 주면 늙은 사장님이라도 성관계 가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

여성의 이력서는 여성이 지원한 회사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 후 웨이보 등 소셜 미디어에 급속히 전파되며 논란이 됐다. 몇몇 누리꾼들은 “여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사회도 책임이 있다”라고 반응했다.

다른 이들은 “그래도 최소한 인사담당자의 시선은 잡았다”라며 “구직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Student offers virginity for job

范雪莹 (女, 20岁) 处女应届毕业生

国籍: 中国

国内求职情况

求职意向: 求职软件工程师

工作经历: 无

教育背景: 四川师范大学

语言能力: 普通话, 英语

自我评价: 处女, 没谈过男朋友, 没谈过恋爱, 如果职位好可以接受老男人。



/Screen capture from Weibo

A Chinese university student has offered her virginity in exchange for a job.

With joblessnes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China, the student has expressed her willingness to spend the night with a boss as long as he offers her a job.

Her resume seems like others, introducing her as "studying at the Sichuan University, looking for an IT programmer position in Chengdu city."

But she mentions "virgin employee, no experience of dating, no one has touched my body," at the bottom of the resume.

"I can have sex with a boss who offers me a good position, though he is quite old," she says.

The company she applied to released the resume.

It has attracted a mixed reaction from online viewers.

One said "her way to seek a job has a problem, but society is partly to blame for the situation as it causes an unemployment crisis."

Another said: "She at least attracts an employer's eyes. Everyone has a different way to express themselves."

daheestardust71@gmail.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중국 여대생이 이력서에 ‘처녀성을 준다’고 적어 중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살 여대생은 최근 중국 취업 사이트에 ‘처녀 신입’이란 제목의 이력서를 게재하면서 이력서 기타 항목에 ‘처녀 신입사원, 이성과 교제 경험 없음,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았음, 좋은 자리(직종)를 주면 늙은 사장님이라도 성관계 가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의 취업난 속에 한 여대생이 보인 일탈된 성윤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남성이 만지는 사진은 당시 면접 장소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5년 10월 29일자 「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 기사」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캡처시각 10.29. 17:09>



『여성 승객 104명 몰카 촬영한 택시기사 징역 1년』

기사입력 2015.10.29 14:49:18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4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3년 2월 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bjc@yna.co.kr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여성 승객 104명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전제한 이 기사에서 문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덧붙인 사진이다. 여성의 허벅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 사진은 몰카를 촬영하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 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기사와 관계없는 선정적인 사진은 지하철 몰래 카메라와 그 처벌에 대한 언론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부추기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편 집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